

맑은물사업본부, 폭염 대책 가동

기온상승에 따른 수도물 사용량 증가 대비, 재난·재해 사전예방 여름철 먹는물 수질관리 특별점검 실시·하절기 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
본부 청사를 시민 무더위쉼터로 운영·전주열수 얼음물 나눔서비스도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권혁신)가 시민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시민들에게 얼음물을 제공하는 등 폭염 종합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오는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수도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고, 수질관리와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절기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폭염대비 종합대책은 △철저한 먹는 물 수질관리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맑은물사업본부 자체 무더위쉼터 운영 △'전주열수'를 얼린 얼음물을 시민 및 감침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물서비스 시행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는 먹는물 수질관리 특별점검을 추진, 여름철에도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맑은물사업본부는 용담댐 및 정수장 등 원수와 정수에 대한 단계별 수질상태 감시를 강화하고, 지하수 수인성 전염병 바이러스 검

사와 지정악수터 시설상태 점검 및 우라늄 등 4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상하수도 대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토사, 지반침하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각 공사장에는 근로자 쉼터를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작업인부들의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맑은물사업본부는 시민들과 감침원, 야외출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주열수 얼음물 무료제공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사 현관에 설치되는 냉풍고에서는 'ICE 전주열수'가 비치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청사 주변 인도에도 얼음물이 담긴 아이스박스가 놓여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맑은물사업본부는 냉방시설이 구비된 청사 1층 민원실과 체력단련실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더위쉼터로 자체 운영, 인근 주민과 감침원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권혁신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수도물 걱정없이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비 여름 종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아이와 부모의 행복지수를 높여요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마음터치 부모 힐링' 교육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나림)는 15일 자녀를 양육하는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도닥도닥 마음터치 부모힐링'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유아교육 전문가인 김나림 센터장(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일상생활 속 때스는 우리 아이 지도법 전수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 △아이와 부모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 등 참석자들이 자신을 진단해보고 자신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아이의 잘못된 내 탓이고, 내가 잘못 키웠다'라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를 높이고, △나만의 소화행(작지

만 확실한 행복) 찾아가기 △엄마인 나를 가감 없이 칭찬하기 △아이와 이해하는 방법 등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각종 육아정보도 제공됐다.

이와 관련, 이번 교육은 해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바람직한 양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해온 한국보육진흥원과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는 7월 3일에도 동일주제로 자체 부모교육을 추가 진행할 예정으로, 교육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jonjssc.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905-6509)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평생학습 기관장 네트워크회의 열어

전주시가 평생학습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5일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에서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평생학습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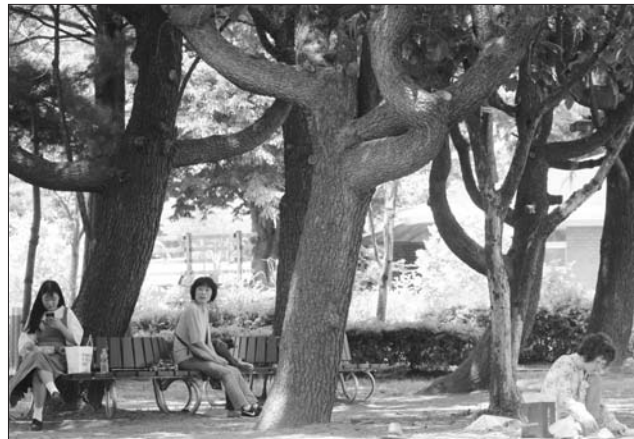
평생학습 기관장 네트워크 회의는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주시민들의 평생학습 증진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각 분기별 1회씩 정기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거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 기관 중 1곳을 선정·방문해 해당기관의 중점사업과 특성을 면밀히 알아보는 순회회의 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다.

이날 2분기 회의에서 참여한 평생학습기관장은 청소년기관인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에서 최근 청소년 관련 사업의 방향과 정책, 오는 9월로 예정된 '제13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에 대한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평생학습도시의 발전과 화합은 평생학습기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평생학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더위에 그늘 찾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15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에서 점심시간을 맞은 시민들이 나무그늘 아래서 돛자리를 펴거나 의자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다.

재미동포 대학생, 전주에서 전통문화 체험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대학생들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재미동포 대학생 25명은 17일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고, 한국전통문화의 정수를 직접 체험했다.

이번 방문은 시가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기존 초청대상을 재외동포 아동·청소년과 한글학교 교육자에서 재외동포 대학생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날 참가한 재미동포 대학생들은 전주한옥마을을 내 다양한 문화재 및 전통문화시설을 탐방하면서 모국의 역사를 배우고, 한옥과 한복, 한지, 한식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전통문화의전당과 국립무형유산원 투어를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체험하고, 삼성전시 프로그램도 관람했다. /송효철 기자

이후에는 전통문화연수원에 입교해 항음주려와 향사례 연수를 통해 선비의 고강 전주에서 예(禮)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처음 모국을 방문한 참가자는 "전주가 보유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통문화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준 전주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전주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사업이 올해 3년째를 맞이해 처음 모국을 방문한 이들이 연수가 끝나고 본국에 돌아가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어 오는 7월로 예정된 재외동포 아동·청소년과 교육자에 대한 연수도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송천도서관, '영화가 사랑한 오페라' 성료

전주시립도서관이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문화를 향유할 수 없었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공간이 돼주고 있다.

전주시립 송천도서관은 지난 5월 1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6회의 걸쳐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일환으로 야간문화프로그램인 '영화가 사랑한 오페라'를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평소 낮 시간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화가 사랑한 오페라'를 주제로 평소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오페라를 대중예술인 영화에 접목시킨 강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강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시공간을 넘나들며 모차르트의 생, 집시의 사랑을 볼 수 있어서 환율한 시간이었다"라며 "집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다양한 야간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낮 시간대 도서관 방문이 힘든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있는 인문학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주시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문화예술복합공간 팔복예술공장 현장방문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15일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를 체험하고 전주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하였다.

팔복예술공장은 원래 카세트 공장으로 운영되던 공간으로 1991년 폐업 후 지난 25년간 방치되고 있다가 2016년 문화재생산업체를 통해 올 3월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전주시는 흥물처럼 버려져있던 공간을 창작스튜디오와 작업실, 전시공간, 전망대 및 예술놀이터 등을 갖춘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화재 생 및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 참여한 완산구청 직원들은 팔복 예술공장을 보며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다른 공간들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등 문화특별시로 향배하는 전주시의 시정 목표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철수 완산구청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일을 직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이해한다면 업무를 추진할 때 시정에 맞게 조화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시정 현안사업지에 대한 현장방문 및 체험을 통해 시정을 이해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대포차 타고 빈집털이... 30대 구속영장

전북과 전남 지역을 돌며 빈집을 털어 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절도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시경 완주군 고산면의 한 주택에 들어가 금반지 등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22일부터 최근까지 전북 완주와 전남 곡성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집 앞에 차량이 없는 곳은 빈집이라 판단하고 절도행각을 벌였다. /뉴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